

 인천광역시		보도자료		경 재외동포청 축 인천설치 확정!
		배포일자	2023년 5월 9일(화) 총 2매	
담당 부서	교육협력담당관	담당자	• 인재양성팀장 이은정 ☎440-2191 • 담당자 현지만 ☎440-2192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	17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인천시, 공공의료 강화위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필요

- 시·범시민협의회 '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업무협약' 체결 -
- 시민 서명 캠페인 선포해 관심과 지지,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호소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와 「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」(상임대표 박종태, 황규철, 이하 범시민협의회)는 9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‘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필수분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의료 취약 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유일한 국립대인 인천 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에 뜻을 함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
협약에 이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 서명 캠페인을 선포하고, 전 시민의 관심과 지지,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.

유정복 시장은 “공공의대는 무엇보다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

립대인 인천대학교에 있어야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” 며, “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, 도서지역 등 공공의료 확충,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” 고 강조했다.

한편, 인천은 강화, 옹진 등 섬 지역 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, 제2인천의료원 설립,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, 영종지역 국립대학병원 유치 등을 민선8기 공약사항에 포함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7시 30분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